

러시아의 탈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 및 경과

- '23.4.18(화), 지역통상조사실 박지원 -

1.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배경과 기축통화 변화

□ 추진 목적

- 서방의 제재로 인해 달러 등의 외환 사용에 제약이 가해진 상황에서 통제가능한 통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금융거래의 안정화 추진
 -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은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강화
 - * 초기에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등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대응
 -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△SWIFT 결제망 배제, △해외계좌 및 국부펀드 동결, △자금조달 금지 등의 금융제재로 러시아의 금융자산 무력화 추진
- 美 달러화 중심의 글로벌 기축통화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경제질서를 추구하기 위해 탈달러화는 필수적인 요인
 - 러시아 정부는 탈달러화를 통해 글로벌경제에서 美 달러화 패권주의 구조를 약화시켜 다극화된 국제 금융질서로의 재편 의도
 - * 이를 위해 중국, 이란 등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경제블록 형성과 탈달러화 시스템 구축 추진
 - 초기에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방어적 목적이 강했으나 점차 루블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다극화된 통화질서 구축에 있어 루블화의 역할 강조

□ 美 달러 기축통화화 과정의 역사와 함의

- 브레튼우즈(Bretton Woods) 체제의 시행을 통한 금본위제(gold

standard) 확립과 美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획득

-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에 따라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였으며 파운드화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 점차 퇴색
 - * 영국은 1925년부터 1931년까지 금본위제 실시
- 미국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경제에서의 위상이 크게 고양되었으며 194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금의 70%를 보유¹⁾
 - * 미국도 1933년 금본위제를 포기하였으나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군수물자 구매를 위해 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
- 미국은 우월적인 경제력과 금 보유량을 기반으로 1944년 금(金) 1온스에 미화 35달러를 고정하고 美 달러화에 타 국가의 가치를 연동하는 브레튼우즈 체제 추진으로 달러의 기축통화化 합의
 - * 본 체제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 지역에 서방 44개국 지도자들이 모여 합의
-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타국가로부터의 금태환 압력이 가중되면서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은 중단되었으며 금본위제와 브레튼우즈 체제는 공식적으로 붕괴
- 미국은 같은 해 12월 주요국들과 '스미스소니언 협정(Smithsonian Affiliation)'을 체결하고 주요국 통화를 달러에 대해 평가절상
 - * 이 협정에서 금 1온스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38달러로 확대하는 데 합의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금본위제의 유지가 아닌 달러와 금의 연계 단절로 평가

→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달러화는 금의 가치에 연동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가치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음(가치저장 수단)

- 페트로달러(Petrodollar)化의 구조 확립 이후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점차 공고화하게 됨.
- 금태환 중단 이후 달러화의 위상은 하락하는 듯했으나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제4차 중동전쟁(옴키푸르 전쟁) 발

1) "Destruction and Reconstruction (1945-1958)," https://www.inf.org/external/np/exr/center/mm/eng/mm_dr_01.htm, (검색일: 2023년 3월 30일)

발 및 OPEC의 원유금수조치로 원유가격 및 달러수요 폭등

* OPEC의 원유금수조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, 영국, 캐나다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로 인해 원유가격 약 300% 폭등

- 1974년 미국의 중재로 인한 OPEC의 원유수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미국과 사우디가 합의함에 따라 페트로달러 시스템 성립

- 이 시스템은 미국은 사우디에 경제적 지원과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, 사우디는 달러를 미국의 국채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'페트로달러의 재순환(recycling of petrodollar)'을 가져옴.²⁾

* 同 시스템의 성립은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영국군이 비용 문제로 중동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자국의 군사안보를 보장해줄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³⁾

- 이후 1975년까지 사우디뿐만 아니라, 다른 OPEC 국가들도 원유수출에 있어 달러화를 사용하는 방식에 참여함에 따라 달러화 수요는 점차 증가하였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강화

→ 페트로달러화를 통해 달러화는 원유교역의 핵심통화가 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국제적인 태환성 및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었음(교환의 매개)

2. 러시아의 탈달러화 시스템 추진 방향

□ 금(金) 기반 통화시스템 재편 및 국제통화 창설

○ 러시아 내부적으로 서방과 분리된 금융시스템 구축의 한 방편으로 금본위제에 대한 논의 본격화

- 서방의 對러 금융제재 및 금 매매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및 금보유고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독자적

2) Christopher M. Blanchard, "Saudi Arabia: Background and U.S. Relations," *CRS Report for Congress*, Nov. 16, 2009, p. 4.

3) Nathaniel Sher, "The 1973 Oil Embargo and US-Saudi Relations: An Episode in New Imperialism," https://etd.ohiolink.edu/apexprod/rws_etd/send_file/send?accession=oberlin14959776467332988&disposition=inline, p. 46.

이고 안정적 통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대두

- 특히,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방의 제재도입 직후인 2022.3.28~6.30 까지 대중으로부터 금 1g을 5,000루블의 고정된 가격으로 무제한 구매하면서 금본위제 도입에 대한 이슈 촉발

* 구매가격인 5,000루블은 당시 환율로 50달러에 해당되었고 이는 1온스(32g)당 1,600달러로 국제시세(1,960달러)보다 약 19% 할인된 가격⁴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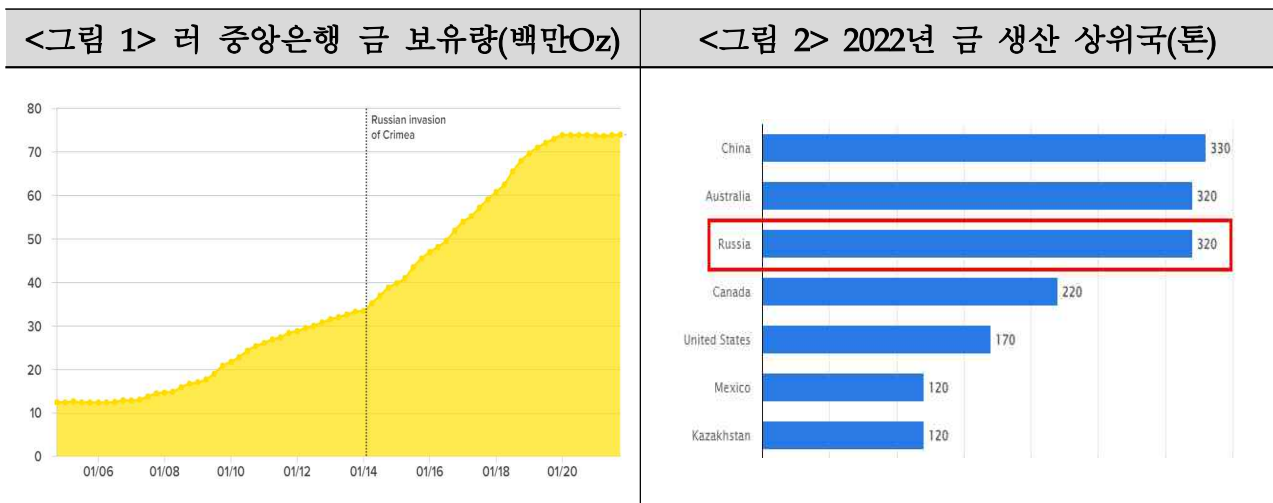
- 2022.12월 일간지인 ‘베도모스찌(Ведомости)’에 러 과학아카데미 소속 글라지예프(Сергей Глазьев)등은 금본위제 도입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의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⁵⁾

* 금 생산 및 채굴량 확대를 통해 금본위제 유지에 충분한 양 확보 가능

○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외화보유고의 일부로 금을 매입해왔으며 현재 금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

-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은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금 보유량 확대

* 특히,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 보유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.



* 자료: (좌) Atlantic Council, “Russia and China have been teaming up to reduce reliance on the

4) “Россия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золотому стандарту - что э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означает?” <https://www.zolotoy-zapas.ru/news/market-analytics/rossiya-priblizhaetsya-k-zolotomu-standartu-cto-eto-na-samom-dele-oznachaet/>, (검색일: 2023년 4월 4일)

5) “Золотой рубль 3.0,” <https://www.vedomosti.ru/opinion/columns/2022/12/27/957178-zolotoi-rubl>, (검색일: 2023년 4월 4일)

dollar. Here's how it's going,” (우) Statista

- 2023년 3월 1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고 구성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7,390만 온스(Oz)로 금액으로는 1,355억 6,410만 달러, 비중은 23.6%를 차지⁶⁾
-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까지도 자국 내 시중의 금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
- 러시아 정부는 금에 기반한 디지털자산과 코인 활용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
 -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자산(Digital Financial Asset, DFA) 발행사로 △Sberbank, △Atomyze, △Lighthouse Fintech, △Alfa bank의 4개 기업을 지정(2023.3월 기준)

▶ (디지털금융자산) 러시아에서 DFA는 암호화 화폐와는 다른 개념으로 발행자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, 비상장주식의 자본에 참여할 권리 등을 기반으로 발행 가능⁷⁾

* 암호화 화폐와는 달리 DFA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투자수단으로만 인정.

- Atomyze社*는 2022.10월 금을 포함하여 7개 광물을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최초의 DFA를 성공적으로 발행 및 판매
 - * 러시아 최대의 광물 개발기업인 Norilsk Nickel의 자회사인 Interros가 최대 주주
- Sberbank도 2022.12월 러시아 최초로 금을 기반으로 가격이 변동되는 DFA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수량 모두 기업대상으로 판매
- 러시아 중앙은행 제1 부총재는 금 기반의 코인발행이 향후 외국과의 경제활동에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⁸⁾

6) “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езервные активы и другая ликвидность 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,” <https://www.cbr.ru/statistics>, (검색일: 2023년 4월 6일)

7)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.07.2020 г. No. 259-ФЗ. «О цифровых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ах, цифровой валюте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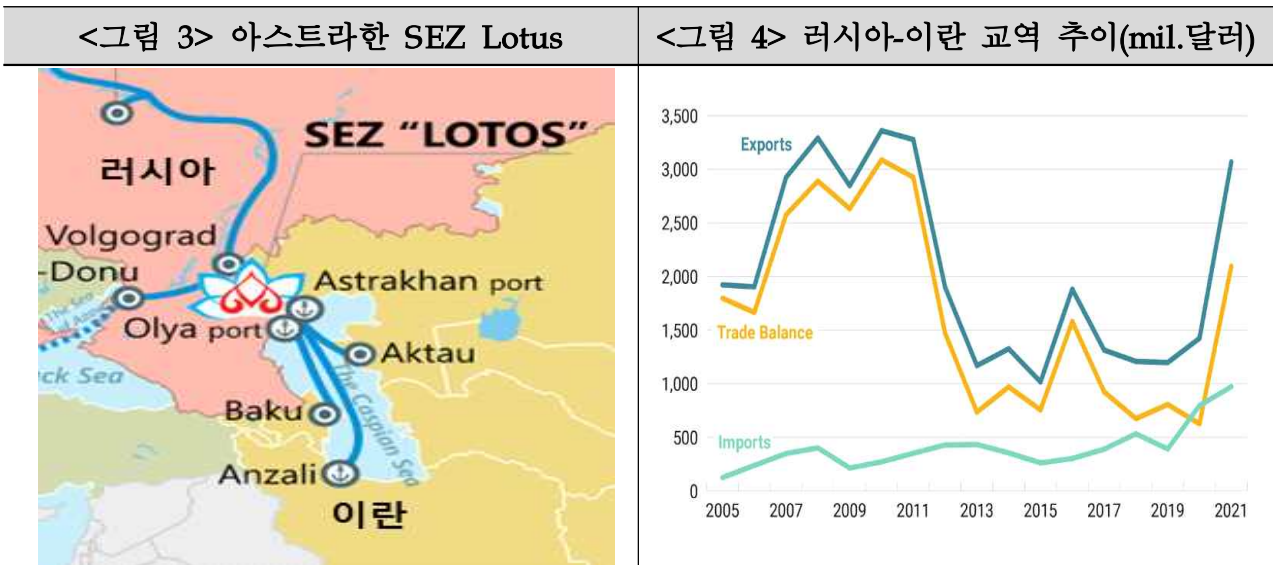
8) “В ЦБ РФ допустили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золотого токена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асчётах,” <https://www.interfax.ru/business/886660>, (검색일: 2023년 4월 7일)

○ 우호국과 금을 기반으로 한 공동통화를 창설하여 상호 교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- 특히 이란과는 공동으로 금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 화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은 수년 전부터 암호화 화폐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완료

- 악사코프(Anatoly Aksakov) 국가두마(하원) 금융위원회 의장은 이란과의 무역 결제용으로 금을 기반으로 한 '스테이블 코인(stable coin)'을 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.9)

*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카스피해 인근에 위치하여 이란과의 주요 교역 루트가 될 수 있는 아스트라한 SEZ를 통해 이란과의 교역에서 활용 추진



* 주: (우) 러시아 기준임

* 자료: (좌) SEZ Lotus 홈페이지, (우) GZERO

- BRICS 회원국이 준비하는 'BRICS 통화'가 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최근 들어 대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음.10)

* BRICS 국가만의 통화창설은 2018년 Valdai club에서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방안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었음.

-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도 궁극적으로 단일

9) “РФ и Иран обсуждаю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золотых стейблкойнов во взаиморасчётах,” <https://www.tass.ru/ekonomika/16883407>, (검색일: 2023년 4월 8일)

10) “Страны БРИКС ведут работу над новой формой валюты, заявил зампре Госдумы,” <https://www.ria.ru/20230330/valyuta-1861966094.html>, (검색일: 2023년 4월 8일)

통화 도입을 통한 더 높은 단계의 통합단계를 밟게 될 것인데, 금을 기반으로 한 공동통화 도입도 가능성 중 하나

□ 루블화 기반의 에너지 교역

○ 2022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정책의 일부로 가스대금 지급을 루블화로만 가능하도록 제한

-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4월 1일부터 천연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루블화로만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개시
 - * 이전까지 러시아는 에너지 거래에서 주로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거래
- 同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급물량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가스관을 통해서 판매되는 천연가스에 한정되며 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됨
- 비우호국 국가들은 러 가스프롬은행(Gazprombank)의 특별계좌를 이용해 루블화로 직접 입금하거나 달러/유로화로 입금 후 자동환전
 - * 가스프롬은행은 러시아의 국영은행으로 주로 유럽과의 에너지 교역 대금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(SWIFT 배제) 대상에서도 제외
-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결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초기부터 명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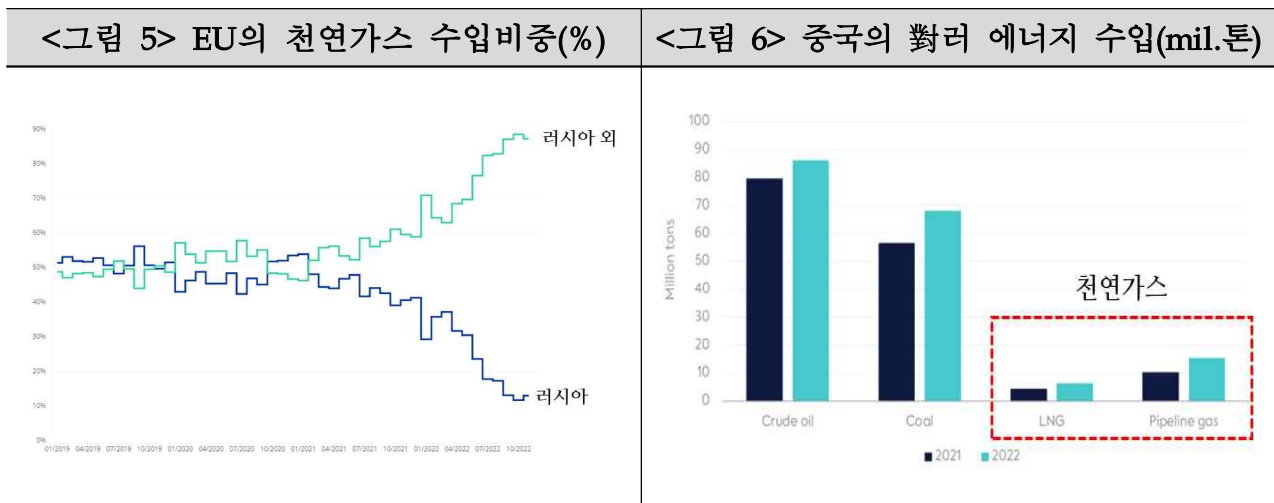
○ 서방국가들은 초기에는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였으나 추후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하였으며 수입 비중은 점차 축소

- 독일의 경제부 및 프랑스 재정부 장관은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.¹¹⁾
 - * 러시아의 해당 정책 도입발표 이후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경보를 발령
- 젠틸로니(Paolo Gentiloni)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이자 이탈리아

11) “France, Germany rejects Putin demands for gas payments in roubles as blackmail,” <https://www.france24.com/en/europe/20220331/-france-germany-rejects-putin-demands-for-gas-payments-in-roubles-as-blackmail>, (검색일: 2023년 4월 10일)

아 전 총리는 “기존의 계약에는 루블화 지급의무가 명기되어있지 않으며 러시아의 요구는 EU를 협박하려는 시도”라고 비난¹²⁾

- 미국을 포함한 선진 7개국 정상(G7) 에너지부 장관들은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기존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¹³⁾
- 하지만, EU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의 루블화 거래를 수용하였고 점차 수입물량은 감소하는 추세
 - * 러시아의 비중은 2022년 말 기준, 약 11-12% 대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LNG 수입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짐
 - ** 러시아의 대체 수출처로 중국, 인도 등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확대는 제한적



* 자료: (좌) European Commission, (우) Columbia Univ.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

-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가즈프롬(Gazprom)은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핀란드, 덴마크, 폴란드, 루마니아, 라트비아 등의 국가에 대해 가스 공급 중단
- 러시아는 우호국인 중국, 튀르키예 등과의 천연가스 거래에도 달러/위안화를 사용하는 대신 루블화 사용 적용 및 확대

12) “Europe rejected Putin’s ultimatum. So why is Russian gas still flowing?” <https://www.edition.cnn.com/2022/04/01/business/russia-gas-ruble-ultimatum-explainer/index.html>, (검색일: 2023년 4월 12일)

13) “G7 rejects Russia’s demand for gas payments in roubles,” <https://www.dw.com/en/g7-rejects-russias-demand-for-gas-payments-in-roubles>, (검색일: 2023년 4월 12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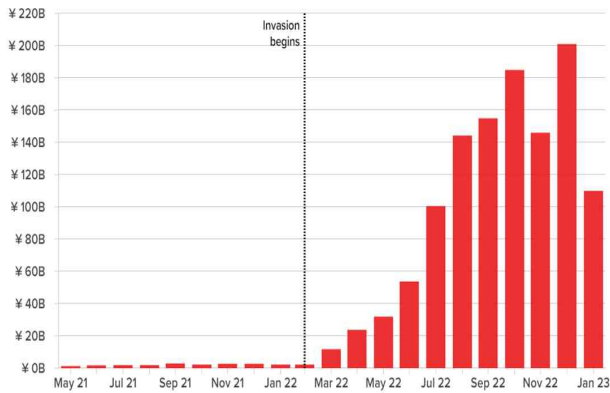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의 초기 조치는 서방제재를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루블화 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 -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는 제재초기 불안한 루블화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¹⁴⁾
 - * 국제 금융시장에서 루블화 수요를 촉발시켜 평가절하를 방지하는 데 기여
 - 또한, 골드만삭스(Goldman Sachs)는 이번 러시아의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이 탈달러화를 추진하려는 동기를 촉발한 것으로 평가¹⁵⁾
 - 러시아 수출에서 결제통화로 루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초 12%에서 2022년 말에는 34%로 증가하였으며 달러 및 유로화 비중은 87%에서 48%로 급감¹⁶⁾
 - 이처럼 단기간 내에 달러화 사용이 급감하고 루블화 비중이 확대된 데는 정부의 에너지 결제 루블화 정책이 크게 영향
 - 하지만, EU와의 천연가스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, 비우호국 권역에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탈달러/유로 정책은 확장에 한계를 노정
- 러시아는 루블화뿐만 아니라, 위안화 등 기타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탈달러 연대 세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
 - 러시아는 대외교역에서 루블화 결제뿐만 아니라, 중국 위안화 결제도 확대하면서 중국과 연대한 탈달러화 가속화
 - * 중국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
 - 러-중 양국은 2022.9월부터 중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대금을 루블과 위안화 각각 50%의 비중으로 결제하기로 합의¹⁷⁾

14) "A sanction counter measure: gas payments to Russia in roubles," <https://www.bruegel.org/blog-post/sanction-counter-measure-gas-payments-russia-roubles>, (검색일 2023년 4월 13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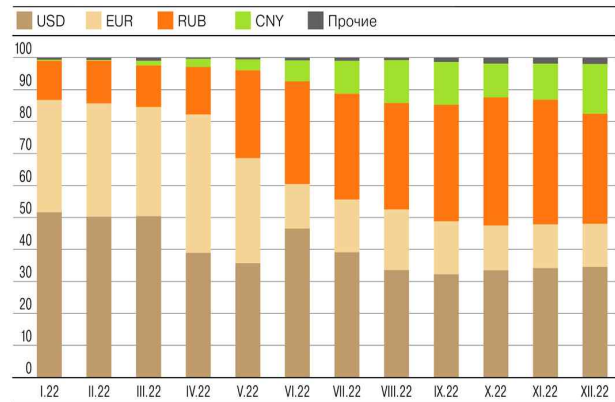
15) "Why does Putin want Europeans to pay for gas supplies in roubles?" <https://www.ft.com/comment/f4699b68-cf17-4b97-aaf0-336b541bb7f1>, (검색일: 2023년 4월 13일)

16) "Доля рубля и юаня в расчётах за экспорт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а половину," <https://www.finance.rambler.ru/ru/markets/50344612-dolya-rublya-i-yuanya-v-raschetah-za-eksport-vpervye-prevysila-polovinu/>, (검색일: 2023년 4월 14일)

<그림 7> 루블·위안화 기반 무역거래



<그림 8> 러 외환보유고 통화별 비중



* 자료: (좌) Atlantic Council, “Russia and China have been teaming up to reduce reliance on the dollar. Here’s how it’s going,” (우) Central Bank of Russia

- 교역에서 루블화 및 위안화 결제가 확대되면서 러시아 정부의 외환보유고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4%(루블)와 16%(위안화)를 차지하면서 탈달러 현상 가속화
- 러시아의 탈달러화 정책은 인도가 추진하는 ‘루피(rupee)의 세계화’와 부합하는데, 양국은 교역 시 루피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거래 가능 은행을 2022.12월 승인
- 러시아는 이란과의 교역에서도 루블화와 이란 리알화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, 2023.1월 기준 교역에서 두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0%를 초과¹⁸⁾
- 러시아와의 루블화 거래뿐만 아니라,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, UAE, 브라질 등의 ‘자원-위안화’ 거래가 시도되면서 탈달러화 거래의 구도가 확산되는 양상

*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2.1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‘걸프 정상회담(Gulf summit)’에서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¹⁹⁾

17) “Gazprom to Shift Gas Sales to China to Rubles, Yuan From Euro,”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2-09-06/gazprom-to-shift-gas-sales-to-china-to-rubles-yuan-from-euro>, (검색일: 2023년 4월 14일)

18) “Rial-Ruble share exceeds 60% in Iran-Russia trade,” <https://www.tehrantimes.com/news/481213/Rial-Ruble-share-exceeds-in-Iran-Trade-trade>, (검색일: 2023년 4월 14일)

19) “China’s Xi calls for oil trade in yuan at Gulf summit in Riyadh,” 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saudi-arabia-gathers-chinas-xi-with-arab-leaders-new-era-ties-2022-12-09/> (검색

3. 시사점 및 향후 전망

□ 글로벌 통화시장 재편의 서막

-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촉발된 탈달러화 기조는 중국, 이란, 중남미 등 신흥국을 포함한 탈달러 통화연대로 발전
 - 탈달러화 기조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와 맞물려 주목받았으며 일부 제재 하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同 기조는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음.
 - * 2009년 리비아는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에게 ‘금화 디나르’를 통한 결제를 제의한 바 있으며 2017년 베네수엘라도 위안화 및 유로화 기반 국제결제 시도
 - 2022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 親 리·중 국가들의 불력화가 본격화되면서 탈달러화 기조 강화
 -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루블화 또는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면서 중국, 인도, 이란, BRICS, EAEU 등을 통해 탈달러화 연대 확산 노력 지속
 - 달러화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가져왔던 가치의 안정성 및 환금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금본위제 및 디지털자산 도입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
- 특히,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불협화음을 노출하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약화에 대한 합리적 의심 확산
 - 지난 수십 년간 양측의 정치·경제·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유지되어왔던 페트로달러 기반의 굳건한 동맹이 최근 원유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균열 노출
 - 2022.10월 미국은 국제유가상승을 억제하여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자 사우디에 원유감산 자제를 요청했으나 사우디

측은 이를 무시하고 OPEC+의 日 생산량 200만 배럴 감산 결정

* 사우디는 경제적으로 높은 유가 유지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편, 외교적으로 탈석유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反하는 입장

- 미국은 사우디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는 등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²⁰⁾
- 2023.3월 중국수출입은행은 사우디 국영은행에 무역대금 결제용 위안화 대출을 시행하고 2023.4월에도 OPEC+는 추가 116만 배럴 감산을 결정하면서 페트로달러의 약화는 가시화되는 양상

□ 도전 요인과 전망

○ 탈달러화의 대체가 되는 통화가 가치와 신뢰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

-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한 통화로 러 루블화, 중국 위안화 또는 제 3의 통화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낮은 금융시장 개방도, 경제의 건전성 등이 우려 요인으로 부각

* 1980~90년대 엔화의 국제화가 추진되었을 당시에도 일본 금융시장의 폐쇄성 및 거품경제붕괴로 인한 일본경제의 취약성이 걸림돌로 작용

- 자국 통화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금본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금 기반의 디지털 통화 창설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나 현실성에 의구심

* 금본위제를 위해서는 금과 루블의 교환비율이 결정되고 이에 충분한 실물 금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통화량과 연계된 전략적 고려가 필요

- 교역통화로의 금본위 디지털화폐 역시 거래자에게 통화로서의 신뢰성 및 태환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

○ 러시아-중국 동조 세력의 정치·경제적 연대와 구심력은 서방의 그것에 비해 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수의 분열요인 내재

20) "Biden vowed to punish Saudis over oil cut. That's no longer the plan," <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ation/2023/01/26/biden-saudis-consequences-oil-cut>, (검색일: 2023년 4월 17일)

-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관계는 최근 수년간 정치·경제·군사 등의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美 싱크탱크인 CSIS는 양국 간 분열 요인으로 △역사적·구조적 문제, △비대칭적 관계, △중국의 이익에 反하는 러시아의 도발을 선정하는 등을 갈등요소로 지적²¹⁾

▶ (러·중간 분열 요인) ①역사적·구조적 문제: 19세기 후반~20세기 중반까지의 양국 간 역사적 갈등, 극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침투, ②비대칭적 관계: 경제·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의 우월성, ③중국의 이익에 反하는 러시아의 도발: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치·경제적으로 중국의 이익과 불합치

- BRICS 내에서 중국과 인도의 관계도 지난 2020년 수차례에 걸친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갈등 양상
 - 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러시아와 대립
 - 러-중 블록의 내부 분열은 단일화된 대오를 무너뜨려 탈달러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분절화된 대안으로 머물도록 제한
- 다만, 글로벌 경제블록화의 진행 속에서 탈달러화의 추세는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·에너지 제재 등이 계속되고 양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, 서구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탈달러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.
 - 다만, 탈달러화의 범위는 당분간 신흥국 중심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속도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.

21) "What are the Weaknesses of the China-Russia Relationship?" <https://www.chinapower.org/china-russia-relationship-weaknesses-mistrust/>, (검색일: 2023년 4월 18일)